

현대자동차·기아, 자동차업계 최초로 대기업-협력사 근로자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첫 걸음 내딛다!

- 조선업, 석유화학에 이어 대기업-협력사 상생모델, 자동차업계로 확산

고용노동부와 현대차·기아는 11월 20일(월) 국내 최대 규모의 협력사 교육 시설인 현대자동차 글로벌상생협력센터에서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를 비롯해 문성준 현대차·기아 협력회장, 이건국 삼보오토(자동차부품 협력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조선업, 석유화학에 이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모델이 자동차업계로 확산된 첫 사례이다. 자동차산업은 부품협력사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지불여력 등으로 이중구조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상생모델 참여는 지속가능하고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자동차산업 노동시장으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공동선언이 단순히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협력사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생협약 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기아-협력사-정부는 자동차산업의 이중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동선언 주요내용〉

- 현대차·기아는 ① 협력사의 숙련인력 확보 ②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③ 협력사의 기술경쟁력 제고 ④ 경영기반 강화 등을 위한 방안 마련·실행
- 협력업체는 ① 자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역량 강화 ② 연구개발·생산성 향상 노력
- 정부는 현대차·기아와 협력사의 자발적인 노력에 상응하여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

이날, 이정식 장관은 “이중구조는 노사 일방에 책임을 지우는 입법적 규제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정책 등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대증처방’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사의 자발적인 협력이 실현되고 관행화될 때 비로소 좁혀질 수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현대자동차·기아와 협력사의 상생모델이 업계 전반을 넘어 기업·지역·업종 단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차 이동석 대표이사는 “오늘날 현대자동차·기아가 글로벌 탑3로 성장하기까지 현대자동차, 기아 임직원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그 바탕에는 묵묵히 함께 노력해 준 협력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복지를 기반으로 안전한 일터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진정한 ‘동행’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기아 최준영 대표이사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완벽한 품질의 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상생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협력사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이번 상생협의체를 통해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행보를 지속하며, 자동차산업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대기업과 정부 등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영신정공(주)을 찾아, 이중구조 실태 등 협력사 노·사로부터 직접 겪고 있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붙임1] 공동선언식 개요

[붙임2]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

[붙임3]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문

담당 부서	노동개혁정책관 이중구조개선과	책임자	과 장	박은정 (044-202-7761)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손우성 (044-202-7762) 김두진 (044-202-7766)



붙임 1**공동선언식 개요**

□ **장소:** 현대자동차 글로벌 상생협력센터(GPC) 포럼관 (경북 경주)

□ **일시:** '23. 11. 20.(월) 11:30~13:30 (120')

□ **참석자**

○ (고용부) 장관, 노동개혁정책관 등

○ (현대차·기아)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부사장)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부사장) 등

○ (협력사) 문성준 현대차·기아 협력회장(명화공업 대표이사)
이건국 삼보오토 대표이사 등

○ (전문가) 이항구 원장(자동차융합기술원)
오진욱 연구위원(노동연구원)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1:30~11:33	3'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1:33~11:38	5'	• 동영상 시청 (현대차그룹 협력사 지원 관련)	기업
11:38~11:53	15'	• 인사 말씀 (장관 → 현대차·기아 → 협력회)	정부·기업
11:53~11:58	5'	• 상생협업체 운영계획 발표	전문가
11:58~12:10	12'	• 공동선언문 서약식 및 기념 촬영	참석자
12:10~13:30	80'	• 센터 순시 및 오찬 간담회	참석자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님,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님과, 협력사의 문성준 대표이사님, 이진국 대표이사님, 그리고 전문가분들을 비롯하여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필요성 및 기본 방향]

□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해묵은 과제입니다.

- 대기업 · 정규직 · 노조원인지 여부에 따라 일에 대한 보상과 보호 수준이 달라지고, 첫 직장에 따라 생애소득 격차가 좌우되며,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의 ‘구직난’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이중구조는 ¹⁾대기업 · 정규직 중심의 경제 · 산업 구조, ²⁾대기업-협력사 간 상생과 협력을 가로막는 법 · 제도, ³⁾사회적 책임과 연대가 부족한 노사의 의식과 관행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인 만큼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개선하기 어려우며,
- 노사 일방에 책임을 지우는 입법적 규제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정책 등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대증처방’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 미래세대와 국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가로막는 이중구조 문제는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사의 자발적인 협력이
실현되고 관행화될 때 비로소 좁혀질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측면에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기업-협력사 간 상생협약은
- 대기업과 협력사 등 이해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스스로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업종 단위에서 이중구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입니다.

[자동차산업으로의 상생모델 확산과 현대차·기아의 선도적 참여]

- 이러한 상생모델이
지난 2월 조선업, 9월 석유화학업에 이어,
오늘 ‘자동차 업계에 최초’로 구축되어
대기업과 협력사 ‘근로자 간 격차 완화’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 자동차산업은 다양한 소재와 수만 개의 부품을 사용하는
종합 기계산업으로서,
- 생산·수출·고용 등 국가경제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그 파급효과도 막대한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입니다.
- 다양한 부품들을 제조하고 조립해야 하는 산업의 특성상
많은 협력사들이 ‘단계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 (협력사 비중) 1차 11.7%, 2차 36.7%, 3차 31.0%, 기타 20.6% ('20. 자동차산업협동조합)

- 밑단에 위치한 2차·3차 협력사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지불여력 등으로 이중구조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 이러한 우려를 극복하고자

자동차시장의 글로벌 선도기업인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이 완성차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하에

- 협력사와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을 비전으로 삼고, 상생협력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공동선언 및 상생협약체 운영]

□ 이러한 상생협력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현대자동차·기아, 협력사 그리고 정부의 약속이
단순히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 정부는 협력사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생방안이 발굴될 수 있도록
‘대기업-협력사-전문가-정부’가 함께하는
상생협약체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 「현대자동차」·「기아」와 「협력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인력 확보, 근로조건 개선,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현장 기반의 합리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 「정부」와 「전문가」는 자동차 업계에서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약체의 자발적인 상생노력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상생협약체의 진솔한 논의와 상호 조율을 통해
청년과 숙련인력이 유입·양성되고,
협력사의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이 개선되며,
 - 근로자들이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자동차산업 노동시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마무리]

- 오늘 자동차업계는 상생협력의 새로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새로운 상생협력의 길에 공감하고 동행해주신
현대자동차·기아와 협력사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정부는 현대자동차·기아와 협력사의 상생모델이
업계 전반을 넘어 기업·지역·업종 단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올 겨울은 특히 매서운 추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 오늘 다짐한 상생의 온기가 자동차업계 전반에 확산되어
한결 따뜻한 노동시장이 되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주)·기아(주)과 협력업체, 고용노동부는 자동차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약속한 제반 사항의 실효성 있는 추진에 최선을 다한다.

1. 현대자동차(주)·기아(주)는 ① 협력업체의 숙련인력 확보 ②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안전 강화 등 근로조건 개선 ③ 협력업체의 전문성과 생산성 제고 등 기술경쟁력 제고 ④ 안정적인 경영기반 강화 ⑤ 업계 장기발전 모색 등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한다.
2. 협력업체는 현대자동차(주)·기아(주)와의 상생과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해 ① 자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역량 강화 ② 연구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 노력 등 협력방안 마련에 적극 참여한다.
3. 현대자동차(주)·기아(주)와 협력업체는 구체적인 상호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상생협력 실천협약」의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한다.
4. 정부는 현대자동차(주)·기아(주)를 비롯해 자동차산업의 성장 - 고용 - 복지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과 실천협약의 이행에 상응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5. 현대자동차(주)·기아(주)와 정부는 이 선언에 기초한 실천내용이 원활히 이행되고 자동차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23년 11월 20일